



좋은이웃교회 GOODNEIGHBOR CHURCH

목장나눔지

좋은이웃교회는 감격이 넘치는 주일예배와 사랑이 넘치는 목장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와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말씀을 근거로하여 주일은 '온세대공동체'가 모이고, 주중에는 '작은공동체'의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공동체: 목장모임은 '나눔중심예배'입니다. 설교자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적용점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코이노니아공동체'입니다.

WELCOME



함께 모인 목장원들이 환영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자(목자)의 재량에 따라 간단한 게임이나 유머를 통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또는 식사를 먼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WORSHIP



- 1) 익숙한 찬양을 준비하여 찬양예배를 드립니다(15분).
- 2) 찬양은 예비과정이 아니며,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합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예배를 드리십시오.
- 3) 목자가 항상 인도하지 말고, 은사를 가진 목장원 또는 서로가 돌아가면서 준비하면 좋습니다.

WORD



- 1) 주일설교/개인묵상 나눔 > 예수님 자랑하기(감사) >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을 나눕니다.
- 2) 말씀나눔은 설교 또는 개인묵상에 대한 적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 3) 예수님 자랑하기(감사)는 한 주간 동안 삶에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 4)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은, 어려움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깊이 있게 나누는 것입니다.

WORK



- 1) 함께 나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가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2) 시간이 여유롭다면 한 사람씩 소그룹 가운데에 넣어, 몸에 살짝 손을 얹어 중보기도 합니다.
- 3)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사역'입니다. 중보기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주일설교

제목: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
본문: 요한복음 13:12-15절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과 요한 1-3서의 저자인 사도요한(여호와의 사랑하는 자)이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은 7가지 표적을 가지고 각기 다른 예수님의 권능의 범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20:31절에 “오직 이 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요 탁월하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세상의 규범이나 윤리나 도덕을 뛰어넘어 선과 진리,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추앙함에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사는 학생에 대한 ‘관심’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 예로 하나, 벗세다 들판에서 말씀을 듣던 수많은 무리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가져온 ‘오병이어’를 축사하시며, 나눠 먹도록 하셨습니다. 둘,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린다고 했습니다(요한복음 10:7-21절). 교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즉, ‘사명’이라는 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교사는 예수님의 관심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교사들이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은 ‘실천하는 교육’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드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요한복음 13:14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본’도 보이셨습니다. 평소 제자들에게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마태복음 18:22절),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34절)라며, 용서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성도)는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 용서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사는 학생에 대한 관심과 섬김의 본, 용서의 본으로 실천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은사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좋은이웃교회’ 모든 신자(성도)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눔질문

1. 여러분! 교사로서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 여러분은 어떤 교사로 살고 있습니까?

“ 진정한 스승
코르자크 ”

2차 세계대전이 전 세계를 뒤덮고, 포악한 나치의 군대가 유럽을 유린하고 있을 때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을 학교에 갑작스럽게 독일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린 학생들과 교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학생들 중 가슴에 별 표시를 달고 있는 유대인 아이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나치가 유대인을 가스실에서 학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아이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군은 어린 유대인 학생들을 거칠게 끌어냈고, 아이들은 죽음의 공포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코르자크’라는 선생님이 총을 든 독일군을 밀치며 달려와 울고 있는 학생들을 두 팔로 꼭 안아주었습니다.

“당신 뭐야! 너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방해하지 말고 저리 비켜.”

독일군은 코르자크 선생님을 아이들에게서 떼어 놓으려고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독일군에게 저항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아이들과 함께 가겠소!” 그리고 코르자크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자상하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가자. 선생님이 같이 가면 무섭지 않지?”

“네, 선생님과 함께 가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코르자크 선생님은 아이들을 따라 트럭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가스실에 도착한 코르자크 선생님을 독일군은 다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들의 손을 뿌리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학생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입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만 죽음으로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선생님은 무서워하는 학생들의 손을 꼭 잡고 아이들을

위로하며 가스실 안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나치에게 학살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세운 ‘야드 바솀’ 박물관에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제자들을 두 팔로 껴안고 있는 코르자크 선생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숭고한 사랑, 오늘 이런 교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THINK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삶을 인도하시는 참 스승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여정 속에서 큰 가르침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스승이 있다면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목장보고서를 주일예배 후에 목장사역센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담당안내

담당	5월 4일	5월 11일	5월 18일	5월 25일	6월 1일
마을특송	살롬	온유	청장년	임마누엘	무지개
대표기도	김영인 권사	김은경 권사	정미현 권사	정영숙 권사	정주영 권사

마을별 교회봉사 담당안내

담당	5월 1일	5월 8일	5월 15일	5월 22일	5월 29일
본당청소	-	섬김	샘솟는	살롬 청장년	온유
중식봉사					

주요광고

- 예수교대한성결교회 101회기 정기총회 / 5월 23일(월) 오전 10시 / 장소: 바이돌리조트
- 월요목양새벽기도회 / 일시: 매주 월요일 새벽 5시 / 장소: 3층 본당(마을장, 목자, 교사, 임원 필참)
- 목요향기로운예배 /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3층 본당(중식제공)

여성을 위한 영성회복의 시간, 가정을 위한 중보사역의 복된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확대사역자회의 / 일시: 5월 22일(주일) 오후 예배 후 / 장소: 3층 본당
- 온세대연합예배(헌아식) / 일시: 5월 29일(주일) 오전 11시 / 장소: 3층 본당
- 헌아 대상: 생후 24개월 미만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목장사역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파워전도대 토요전도 (2시 30분/ 2층 집합).

사랑 나눔 전도가 '매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금주: 2권사회 / 다음 주: 3권사회)

- 꽃꽂이 ■
- 한성문(생일)

- 교우소식 ■
- 치유 중보 기도 – 김수차 권사/ 유수림 권사/ 김해생 권사/ 이문형 장로/ 김진석 집사/ 김태인 집사
한정희 권사/ 이향숙 사모/ 유춘자 권사/ 조병양 집사/ 조인상 집사/ 문동준 청년
- 목사인수식 – 김용훈 전도사 / 일시: 5월 23일(월) 저녁 8시 30분 / 장소: 오산성결교회
- 결혼 – 정기영집사(김선영집사)의 장남 세웅 / 일시: 5월 28일(토) 11시 / 장소: 평촌아르떼채플&컨벤션 5층 채플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서 받을 왕관이 없다